

War Room II.

먼저 '강한 자'를 결박시켜야 승리할 수 있다. (영적전쟁)

[마태복음 12:29]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29 "Or again, how can anyone enter a strong man's house and carry off his possessions unless he first ties up the strong man? Then he can rob his house.

1. 성도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는 두 가지 왕국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이며, 다른 하나는 사탄이 다스리는 왕국이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즉,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와 대치되고 있는 사탄의 나라와 대립되는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한국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내가 대한민국의 시민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북한과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성도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성도의 삶에 '영적 전쟁은 선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은 두 나라의 대치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2. 분쟁하기 때문에 서지 못한다.

[마태복음 12:22] 그 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니라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신다. 현상은 보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인데, 원인은 '귀신'들렸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이 치유했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다 놀라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라고 말한다. 즉,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다. 사람들 안에 혼돈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분쟁에 대한 영적 원리를 설명하신다.

[마태복음 12:25-26] 25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26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분쟁'이라는 말을 하신다.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진다. 분쟁하는 동네나 집은 서지 못한다. 무슨 말인가? 분쟁이 해결되어야 나라가 설 수 있다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말씀하신다. 영적인 영역은 사실 초논리이다. 초이성이다. 이것은 비 이성, 비 논리와는 다르다. 논리와 이성으로 해석할 수 없을 뿐이다. 그 말은 알고 보면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높은 차원에서의 이해를 말하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의 논리대로라면, 귀신과 귀신이 분쟁을 하는데 어떻게 그들의 일과 나라가 설 수 있으며 성공하겠냐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다. 우리의 삶에도 서지 못하는 일이 있다. 세워도 무너지는 일, 좌초되는 일, 승리하지 못하고 계속된 패배 가운데 있는 일들이 있다 (개인, 가정, 기업, 교회, 사역 등). 여기에 원인이 있다. 분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분쟁이 해결되어야 서게 된다는 것이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하나님 나라 (분쟁이 해결되다)

[마태복음 12: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분쟁이 해결되었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 나라' 라고 말씀하신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 사탄의 나라와 분쟁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 사탄의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은 분쟁이 해결되었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다. 놀라운 사실이다. '분쟁'의 해결은 성도들의 삶에서 그래서 중요하다. 개인, 가족, 공동체, 비즈니스, 나라 등 분쟁이 있으면 설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다. 오늘 내 삶과, 가정과, 교회, 일터 안에 서지 못하는 일이 있는가? 분쟁의 일이 해결되어야 한다.

3. 원리에 대한 이해

바울은 성도들의 삶에 있는 영적 전쟁(분쟁)에 대한 정확한 원리를 설명한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이다. 에베소서 6장은 마지막 전쟁하는 교회의 모습을 말한다. 교회는 병원도 될 수 있지만, 전쟁하는 군대의 정체성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장이라 중요하다. 성도의 삶에 있는 실재적 문제이며, 이 땅에 있는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에베소서 6:12]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은 성도의 삶에 싸움이 있다고 말한다(싸움). 싸움은 대상이 있다. 영적인 영역도 싸움이라는 것이다. 보이는 몸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라 말한다. 악한 영의 정체는 무엇인가?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다.

* 하나님 나라 vs 사탄의 나라

하나님 나라도, 사탄의 나라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이다. 두 나라 모두 권세가 있다. 통치자가 있다. 정사와 권세가 있다. 그리고 이 땅의 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에 존재하는 완벽한 구조의 나라이다. 완벽한 구조라는 것은 '영적 원리'에 의해 가동되고 있다는 것이다. 높은 차원의 그 나라는 보이는 땅의 차원에 영향력을 주기 원한다. 그래서 똑같은 정사와 권세가 가동되는 구조를 만든다.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세운다. 그들을 통해 일어난 구조, 조직, 공동체, 나라가 있는 것이다. 그 강한 자들의 영향력 아래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실재가 일어난다. 경제, 교육, 가정, 나라, 모든 영역에서 일어난다.

4. 강한 자

[마태복음 12:29]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오늘 말씀을 보면 강한 자가 다스리는 집이 보인다. 강한 자의 정체를 말한다. 악한 자이다. 세간을 강탈하는 포악한 자이다. 상상해보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강한 자의 압박 밑에 있는 노예들과 다름없다. 강한 자의 강력한 결박에 있는 자들이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다. 강한 자가 있어 내 삶에 자유가 그로부터 결박 당하며, 나의 것들이 강탈당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강한 자에게 벗어나는 것이 내 삶의 본질적 회복의 첫걸음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강한 자와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만약 그 집에 있는 노예들이 강한 자와 싸우기로 마음먹었다고 생각해 보자. 그리고 싸운다면 치명적인 외상과 내상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에 대한 전략을 말씀하신다.

(1)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주목할 단어가 있다. '먼저', '강한 자', '결박'이라는 세 단어이다. 영어로 보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다는 것이 'he first ties up the strong man?'로 표현되어 있다. 순서가 있다는 것이다. 강한 자를 먼저 결박시킨 후에, 종들은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여기에 영적 원리가 있다. 내 삶에 자유가 주어지는 순서는 먼저 강한 자를 결박시킨 후에 자유가 주어진다. (결박 후의 자유)

(2) 강한 자의 정체를 알아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 있는 강한 자의 정체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다.

* **볼링 헤드 핀의 원리** - 강한 자를 결박시켜야 하다. 헤드 핀을 쓰러뜨려야 볼링핀 전체가 쓰러진다. '줌 아웃'해서 전쟁을 보아야 한다.

(3) 강한 자 (헤드 핀)에 집중하라.

ㄱ) **골리앗** - 다윗이 그냥 싸운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 전쟁의 원리를 알았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시킬 때 일어나는 원리를 알았다. 골리앗이라는 강한 자(영향력-헤드 핀)와 싸우는 것은, 곧 블레셋과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내 삶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이 '줌 인'시키는 헤드 핀(강한 자-영향력)이 있다. 그 헤드 핀을 보았다면 '줌 아웃'해서 전체를 보아야 한다. 그 후, 다시 '줌 인'해서 헤드 핀에 집중하는 것이다. 집중이 중요하다. 명심하라. 이기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한다. 싸움은 집중하는 자가 이긴다.

ㄴ) **헤드 핀** - 헤드 핀은 지금 갑자기 내 삶 위에 떠오른 제물들과 주제들이다. 그냥 넘어가지 마라. 골리앗은 그냥 넘어갈 대상이 아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헤드 핀으로 떠오르게 하시는 키워드를 보아야 한다. 무너지면 안 된다. 집중해야 한다.

5. 집중의 기도

'집중'이 필요하다. 집중의 기도가 필요하다.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한다. '다윗'의 집중을 보라. 강한 자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 블레셋 전체가 넘어진다. 못 박는 원리와 같다. 집중하여 한곳을 쳐야 무너진다. 오늘 내 삶에, 우리 공동체에, 내 일터에, 하나님께서 집중하게 하는 키워드를 보아야 한다.

(1) 집중하여 강한 자를 결박 시키라 : 위롭의 기도로 집중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자.

(2) 믿음으로 강한 자를 결박 시키라 : 가능하다.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3) 더 강한 자가 되어, 강한 자를 결박 시키라 : **챔피언 예수님**

강한 자는 예배자이다. 강한 자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강한 자는 말씀위에 있는 사람이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권능으로 우리 위에 임하신다. (권능 - 권세와 능력) 훈련된 자. 도전하는 자가 강해진다.

(4) 반복하면 강해진다. (다윗과 다니엘의 영성)

'강한 기도' - 다니엘처럼 반복하여 골방에서 예배하라. 혼자의 예배를 통해서도 하늘 문을 여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6. 강한 자 - key person

하나님 나라에서도 강한 자가 있다. 다니엘이 강한 자였다. 다윗이 강한 자였다. 열두 제자가 강한 자였다. 베드로와 바울이 강한 자였다. 우리가 강한 자이다. 이 사람에게 권세가 있다. 이것이 바로 기도와 예배이다. '키 펄슨(key person)' 이 되어야 한다. 공격이 있다. 강해지자. 한 선교사님의 말씀처럼 두려움 속에서, 현장에서, 고난 속에서, 광야에서 만들어진 진짜 야성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